

16세 유영, 연아키즈에서 '포스트 김연아'로 우뚝

2010년 김연아 세계신기록 보고 피겨 입문
 ISU 2020 4대륙 선수권서 은메달 획득
 2009년 김연아 이후 11년만에 입상 '꽤저'

유영(16·과천고)은 연아키즈다. '피겨여왕' 김연아(30)가 세계 무대 정상에 서는 것을 보면서 피겨 스케이팅에 입문했다. '골프여왕' 박세리(43)로 인해 탄생한 수많은 세리키즈들처럼 김연아를 보면서 성장한 연아키즈들 또한 그 수가 적지 않다. 유영



유영(왼쪽)과 김연아가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 그중 한 명이였다. 연아키즈였던 유영이 '포스트 김연아'로 우뚝섰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2020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연아가 정상에 섰던 2009년 이후 11년만에 이 대회에서 나온 한국인 메달리스트다.

유영은 8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2020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9.94점, 예술점수(PCS) 69.74점, 합계 149.68점을 기록했다.

쇼트프로그램 점수 73.55점을 더해 총점 223.23점을 얻은 유영은 일본의 기히라 리카(232.34점)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영에 이어 미국의 브레이디 테넬이 222.97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 US 인터내셔널에서의 세운 자신의 프리스케이팅 최고점(141.25점)을 갈아치웠고 총점(217.49점) 역시 자신의 ISU 공인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유영이 스케이팅화를 신은 것은 김연아가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던 2010년. 아버지의 일 때문에 싱가포르에 살고 있던 유영은 수많은 연아키즈들처럼 김연아의 매혹적인 연기에 이끌려 빙판에 발을 내디뎠다.

이후 유영은 차근차근 성장했다. 초등학생이던 2016년에는 전국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에서 11세8개월의 나이로 우승, 김연아가 갖고 있던 최연소 우승 기록(12세 6개월)을 넘어서며 '신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첫 번째 성화주자로 나서는 영예를 안았고, 개회식에서도 7명의 친구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했다. 그만큼 유영의 잠재력, 그를 향한 기대가 컸다.

성공적으로 주니어 시절을 보낸 유영은 지난해 10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켈로나에서 열린 시니어 그랑프리 데뷔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연아, 임은수(17·신현고)에 이어 한국 여자 선수로는 세 번째로 국제빙상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메달을 목에 걸었다.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 반 회전)이 유영의 주특기다. 김연아의 '라이벌'로 꼽히던 일본의 아사다 마오(30)가 구사하던 기술. 2018년부터 시도하기 시작해 이제는 자신의 확실한 기술로 소화했다. 이날도 유영은 프리스케이팅에서 트리플 악셀을 깔끔하게 성공하며 은메달을 따냈다.

이대로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도 기대해볼만 하다. 유영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는 연령 제한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유영의 올림픽 데뷔전이 될 전망이다.

이번 은메달로 유영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포스트 김연아' 자리를 굳게 지켰다. 6살에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해 10년만에 '여왕' 김연아가 섰던 시상대에 올랐다. 시상자로 현장을 찾은 김연아도 유영의 성장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 유영 주요 수상 경력

- 2019 ISU 그랑프리 2차 대회 여자 싱글 3위, US 인터내셔널 피겨스케이팅 클래식 여자 싱글 2위, ISU 챌린저 시리즈 톰바르디야 트로피 여자 싱글 3위, 제73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1위
- 2018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령킹대회 여자 싱글 1그룹 2위, 달린 트로피 주니어 여자 싱글 1위, ISU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여자 싱글 3위, 제72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1위
- 2017 KB금융 피겨스케이팅 코리아 챌린지 2차 대회 겸 회장배 령킹대회 여자 싱글 1그룹 1위, KB금융 피겨스케이팅 코리아 챌린지 주니어 여자 싱글 3위, 달린 트로피 어드밴스드 노비스 2위
- 2016 제18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꿈나무대회 초등부 여자 싱글 8급 1위,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령킹대회 여자 싱글 1그룹 1위, 아시안 오븐 피겨스케이팅 트로피 대회 여자 싱글 어드밴스드 노비스 부문 1위, 컵 오브 티를 어드밴스드 노비스 1위, 제70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시니어 여자 싱글 1위
- 2015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령킹대회 여자 싱글 2그룹 2위, 제17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꿈나무대회 1위, 아시안 트로피 어드밴스드 노비스 2위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